

FA 러브콜 이어지는데... 아직 조용한 삼성과 강민호

올해 스토브리그가 개장한 지 한 달이 넘었다. 분위기도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 특히나 삼성 라이온즈 잔류가 유력해 보였던 강민호의 계약 소식도 좀처럼 들리지 않고 있다.

베테랑 포수 강민호는 12월 기준 KBO 리그 10개 구단 중 어느 곳과도 프리에이전트(FA)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강민호는 KBO리그 역대 최초로 4번째 FA에 도전했다.

2013년 생애 첫 FA 자격을 취득한 그는 원소속팀인 롯데 자이언츠와 4년, 75억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8년 4년, 80억원에 삼성으로 이적했고, 2022년에도 4년, 36억원에 삼성 잔류를 택했다.

강민호가 이번 FA 시장에 나오자 그가 친정 팀인 롯데로 돌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1985년생, 이제 불혹을 막 넘긴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강민호는 올 시즌 127경기에서 타율 0.269, 12홈런 71타점 OPS(출루율+장타율) 0.753을 기록, 경쟁력을 보여줬다.

그가 FA C등급인 만큼 원소속구단이 아닌 타 구단에서 그를 영입할 경우 보상 선수 없이 전년도 연봉의 150%만 지급하면 돼 강민호의 이적도 충분히 예상 범주 안에 들어왔다.

하지만 강민호는 그 가능성을 스스로 불식시켰다.

강민호는 지난달 30일 더 제너레이션 매치 경기를 앞두고 취재진을 직접 만나 "삼성과의 협상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일 리얼클러브 어워드에서도 원태인(삼성)과 함께 베스트 배터리로 수상한 뒤 "태인에게 고맙다. 앞으로도 받을 수 있게 힘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3일 삼성이 베테랑 타자 최형우와 2년 최대 26억원에 FA 계약을



FA 강민호, 스토브리그 한 달 넘게 계약 소식 없어 원태인·구자욱 "삼성에 꼭 필요해, 남아줬으면" 구애

체결하면서 분위기가 조금은 달라졌다. 침묵과 불안은 비례하게 증가했다.

좀처럼 반가운 소식이 들리지 않자 삼성 후배들은 공식석상에서 수차례 그의 이름을 언급하기도 했다.

강민호와 오랜 기간 배터리 호흡을 맞춘 원태인은 지난달 말부터 "(강)민호 형이 없으면 팀이 안 돌아간다. 사장님이 민호 형을 꼭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면서 "삼성엔 원태인이 없어도 되지만 강민호는 없으면 안 된다"며 강민호 잔류를 향한 열망을 드러냈다.

지난 2일 조야계약 프로야구 대상 시상식에서도 "(강민호에게) 전화로 연락해 절대 다른 곳에 가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다"고 웃으며 "이번에 구단이 힘을 써주셔서 민호 형을 꼭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삼성의 주장 구자욱도 지난 9일 골든글러브 수상 직후 취재진을 만나 강민호의 거취를 묻는 질문에 "아직도 사인을 안 했나"고 되물으며 "다들 아시다시피 팀에 꼭 필요한 존재다. 형과 대화를 정말 많이 하는데, 어디 가실 생각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자신감 있게 말했다.

그는 "삼성이라는 팀을 너무나 사랑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분명히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구단도, 민호 형도 믿고 있다. 저와 그렇게 약속했다"고도 덧붙였다.

다음 시즌을 마친 뒤 원태인과 구자욱 등 팀의 투타 중심이 FA 자격을 획득하는 만큼 2026시즌은 삼성이 우승을 노릴 가장 적기다.

최형우라는 베테랑을 영입한 것만으로도 다음 시즌 삼성의 우승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지난 8년 동안 강민호가 삼성의 안방을 든든히 지킨 것도 양면성을 지닌다. 든든한 베테랑의 꾸준한 활약에 백업 포수의 성장은 타 구단과 비교해도 확연하게 느리다.

지난 2022년 삼성 유니폼을 입은 김재성은 올해 43경기에 나서 타율 0.127(63타수 8안타)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삼성은 이달 중순 김재성을 일본 원투 리그에 파견해 타구 프로 및 실업팀 선수들을 상대하며 기량을 끌어올릴 기대하고 있으나, 당장 그가 강민호를 대체하기는 무리가 크다.

두 선수와 함께 올해 플레이오프(PO) 포수 엔트리에 들었던 이병현도 이번 시즌 55경기에 출전해 안타 11개만을 생산했다.

삼성으로서도 강민호는 절대 놓칠 수 없는 카드다. /뉴스

서남권 첫 공립 산림레포츠센터 조성 첫 단추

국비 2억1천500만 원 확보... 자연친화·안전중심 모델 마련

2029년까지 2만㎡에 다양한 산악프로그램 즐기도록 조성

전라남도도는 2026년 정부예산에 서남권 첫 공립 산림레포츠센터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국비 2억 1천500만 원을 확보, 자연친화적 안전 중심의 공공형 산림레포츠 모델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국·공립 산림레포츠센터 시설은 강원 강릉, 경북 문경, 경남 밀양 등 동부·중부권에만 조성돼, 서남권은 사실상 산림레포츠 기반시설의 공백지대였다.

이번에 조성되는 산림레포츠센터는 서남권(전라·충청) 지역 첫 공립시설로, 전라형 산림레포츠 산업의 체계적 육성도 도민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새로운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무안읍 일원 2만㎡에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총사업비 300억 원(국비 150억·군비 150억)을 투입해 조성된다.

썰리안, 산악자전거, 로프체합시설, 트리탑 시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에게 자연을 체험하며 즐길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교육·안전·체험·전문인력 양성 기능까지 하는 서남권 핵심 레포츠 플랫폼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2026년부터 기본·실시설계 용역에 /김명수 기자

본격 착수해 산림레포츠 전문기관 기능을 목표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역 특성, 지형, 수위 분석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안전한 시설 설계를 추진, 향후 운영 안정성을 높여겠다는 방침이다.

사업 대상지인 무안 승달산 일대는 천혜의 숲지형과 우수한 접근성을 갖췄다. 한국 중요 산림식물자원을 보존하는 휴게원, 숲속 야영장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공립 산림레포츠센터와 연계해 서남권 산림관광 레포츠의 메카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섭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이번 국비 확보는 서남권 산림레포츠 기반 구축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오랫동안 부족했던 서남권 산림레포츠 수요를 충족시키는 핵심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남도는 무안군과 긴밀히 협력해 설계와 국비 확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시설로 조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불혹 넘겨 다시 태극마크...SSG 노경은 "최종 엔트리 승선 자신있다"

2013년 WBC 이후 13년 만에 두 번째 태극마크 눈앞



SSG 랜더스 노경은이 9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2025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페어플레이상을 수상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스

불혹을 넘긴 나이에 202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1차 캠프 명단에 승선한 SSG 랜더스 베테랑 투수 노경은이 최종 엔트리 합류 의지를 한껏 드러냈다.

최종 엔트리에 승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내년 WBC에 가게 된다면 젊은 투수들을 최대한 돕겠다는 생각이 다.

노경은은 최근 인터뷰에서 "1차 사이판 훈련 캠프를 마친 뒤 대표팀에서 낙마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구위 등에서 자신있다"며 "몸을 잘 만들고 있다. 최종 판단은 루지현 대표팀 감독님과 코치님들이 내리겠지만, 최종 엔트리에 오를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노경은은 지난 3일 한국야구위원회(KBO) 전력강화위원회가 발표한 2026 WBC 대비 1차 훈련 캠프 참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 야구 대표팀은 지난달 15~16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과 두 차례 평가전을 치른 후 베테랑 투수의 필요성을 느꼈다.

당시 젊은 선수 위주로 꾸려진 한국 투수진은 일본전 2경기에서 사사구만 23개를 남발했다.

평가전을 마친 후 루지현 대표팀 감독은 "젊은 투수들로만 마운드를 운영해 어려움이 있었다. 내년 1월 대비 훈련에는 베테랑 선수들을 포함하려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후 노경은과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한화 이글스)을 사이판 1차 캠프 명단에 넣었다. 1984년생으로 내년에 만 42세가 되는 노경은은 사이판 캠프에 참가하는 선수 중 최고령이다.

하지만 기량은 후배들에 뒤지지 않는다.

노경은은 올해 77경기에서 3승 6패 3세이브 35홀드 평균자책점 2.14를 작성하며 SSG 마운드의 허리를 든든히 책임졌다. 홀드 1위는 그의 차지였다. 지난해 38홀드를 수확하고 홀드 1위

에 올라 생애 첫 타이틀을 거머쥔 노경은은 2년 연속 홀드왕에 등극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최고령 홀드왕 기록을 세웠다.

배어난 성적을 거둔 노경은은 시상식에 참석하느라 바쁜 겨울을 보냈다. 지난 9일 열린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는 페어플레이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꾸준한 자기 관리와 성실한 훈련 태도는 노경은이 불혹을 넘기고도 리그 최정상급 기량을 선보일 수 있는 원동력이다. 이에 페어플레이상도 수상할 수 있었다. /뉴스

'남자 육상 100m 한국新' 김국영, 국가대표 코치로 새 출발

한국 육상 '간판' 김국영이 국가대표 지도자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

대한육상연맹은 12일 '국가대표팀 대표 코치 채용 최종합격자'를 발표했다.

단거리 지도자 부문에 응시한 김국영이 최종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제 트랙에서 직접 뛰는 게 아닌, 국가

대표 선수들의 성장을 돕는 지도자의 길을 걷게 됐다.

연맹 관계자는 "김국영은 선수에서 은퇴하고 여자 단거리 코치를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국영은 한국 남자 육상 단거리 간판 스타다.

그는 2017 코리야오피너육상대회 남자 100m 결승에서 10초07을 기록, 이 부문 한국 남자 역대 1위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육상 남자 400m 계주에서는 동메달을 목에 걸며 개인 4번째 아시안게임에서 첫 메달의 영광을 누렸다.

지난 7월부터는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약해 왔다. /뉴스

동·호지정 계약 중

3,214세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된다.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X1 | FORENA

방문예약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증정!

* 상가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PREMIUM6

NO.1 BRAND	총 3,214세대 대단지의 품격	원스톱 도보 학세권	일상을 높인 특화설계	다채로운 커뮤니티	쾌적한 에코라이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자이와 포레나의 합작	복구를 대표할 대규모 브랜드 타운	단지내 어린이집 및 단지 앞 경영초, 운암중 등 안심 학세권	채광과 조망을 고려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 조형형 유리난간 적용, 세대 전용 창고 등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오픈 카페스테이션 전 타석 GDR골프연습장 및 스크린 골프 등	약5.5만㎡ 규모의 단지 조경과 운암산, 종의관천 등 힐링 자연환경

발코니 무상

중도금 무이자

일부 품목 무상

+

파격적 혜택

총 3,214세대 중 일반분양 1,192세대 [전용 59㎡ / 75㎡ / 84㎡]

062) 607-8338

시흥 운암 3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시공 GS건설
시공 (주)한화/건설
시공 HDC인더스틸개발